듣는 강론

가톨릭마산

대림 제4주일
주님 성탄 대축일
2023년 12월 24일·25일
제2597호

성탄(명례성지) © 사진 / 양병주 분도

주님 성탄 대축일 밤미사

제1독서	이사 9,1-6
화답송	◎ 오늘 우리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제2독서	티토 2,11-14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원자 주 그리스도 태어나셨다. ◎
복음	루카 2,1-14
영성체송	말씀이 사람이 되셨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네.

주님 성탄 대축일 낮미사

제1독서	이사 52,7-10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2독서	히브 1,1-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밝았네. 민족들아, 어서 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
복음	요한 1,1-18 또는 1,1-5.9-14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 故 김용민 신부 약력 2면
▶ 교구장 서리 성탄 담화문 4~5면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사무처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죽헌로 72 홈페이지 http://cathms.kr 유튜브채널 천주교마산교구

주님! 김용민 레오나르도 신부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교구 사제 김용민 레오나르도 신부(1990년 6월 29일 서품)가 12월 14일(목) 오후 12시 28분에 선종하였습니다.

장례미사는 12월 16일(토) 오전 10시 주교좌 양덕동성당에서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주례로 거행되었습니다. 고인은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약 력

1961년 5월 20일	경남 진주시 평안동 21번지 출생
1981년~1985년	광주대건신학대학
1988년~1990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1989년 6월 29일	부제 수품
1990년 6월 29일	사제 수품(KBS 창원홀/ 박정일 주교 집전) 서품 성구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요한 20,28)

1990년 6월 29일 ~ 1991년 6월 27일	반송본당 보좌 신부
1991년 6월 28일 ~ 1994년 8월 16일	진영본당 주임 신부
1994년 8월 17일 ~ 1996년 7월 3일	상남동본당 주임 신부
1996년 7월 4일 ~ 2000년 1월 17일	진교본당 주임 신부
2000년 1월 18일 ~ 2003년 1월 13일	함양본당 주임 신부
2003년 1월 14일 ~ 2007년 1월 1일	대건본당 주임 신부
2007년 1월 2일 ~ 2008년 1월 10일	안식년
2008년 1월 11일 ~ 2010년 1월 7일	사천본당 주임 신부
2010년 1월 8일 ~ 2014년 1월 2일	중앙동본당 주임 신부
2014년 1월 3일 ~ 2017년 1월 12일	거제본당 주임 신부
2017년 1월 13일 ~ 2021년 1월 21일	양덕동본당 주임 겸 마산지구장
2021년 1월 22일 ~ 2023년 1월 12일	양곡본당 주임 신부
2023년 1월 13일	요양
2023년 12월 14일	선종

선종하신 김용민 레오나르도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조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 교구 사제단 일동

강병모 파비아노 **신부**
대산본당 주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찬미 예수님

전례력으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세속력으로는 이제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고, 성탄과 함께 곧 2024년이 옵니다. 우리는 의례히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란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처럼 건강한 것,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고통 없이 편히 사는 삶…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복의 기준에서 본다면, 미혼모에 사형수의 어머니에 불과한 마리아는 지지리 복 없는 여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그녀를 두고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루카 1,28)라 하고, 우리는 왜 그녀를 복받은 여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성경이, 또 신앙이 이야기하는 복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복은 그야말로 있다가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루기 위해, 부질없는 질주와 경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그 믿음을 둔 사람들은 이미 다른 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복이 아니고, 오래 살아서 복이 아니고, 능력 있고 성공을 해서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오늘 복음과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는 성모송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으면, 태중의 아들 또한 복이 가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은 딱 한 줄로 정의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이것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복이 아니고, 오래 살아서 복이 아니고, 능력 있고 성공을 해서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과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이 복은 오로지 하느님께 희망을 둔 사람만이 깨닫고 누리는 '천상의 복'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하느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복에 "아멘." 한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복, 그것 하나를 잉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을 희망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느님 복,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하는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 때문에 참으로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하느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삶을 희망하며, 그런 기쁨을 잉태하는 성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 대림 제4주일 전례

제 1 독 서	2사무 7,1-5.8ㄷ-12.14ㄱ.16
화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2 독 서	로마 16,25-27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 음	루카 1,26-38
영 성 체 송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이사 9,1)

교우 여러분,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 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3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 한 해를 살아갈 힘을 청합시다. 천상의 기운과 하늘의 에너지를 은총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이렇듯 우주의 주인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기쁨과 희망의 축제일입니다. 2024년에도 삶의 어두움을 건너뛰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러한 힘을 청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합시다. 우리가 밝아지면 그만큼 우리 주위도 밝아집니다.

세상은 물질 최고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물질의 소유를 행복으로 여기며 소유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신앙인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계신 예수님께 행복의 깨달음을 청해야겠습니다. 오로지 말씀에만 순종하며 성가정을 이루셨던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삶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성탄의 예수님을 닮아 조금은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은 겸손과 낮은 자세로 임하면 뜻하지 않은 답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 방법으로만 해법을 찾았다면 성탄절을 맞아 변화를 일으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회는 놀랄 만큼 외형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내적 나눔이 없으면 공허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가난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야 합니다. 따뜻함과 밝은 기운을 전해야 할 사람을 떠올려야 합니다.

성탄절엔 우리 모두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구유경배를 통해 아기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선언합니다. 이제는 내 삶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함께 일하는 이들의 부족함을 받아주는 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행위입니다.

교우 여러분,

금년 3월 22일 우리 교구는 새 교구청을 완공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교구청 신축은 주님의 크신 도움과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봉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도 우리 교구를 움직이는 신비스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부족한 힘이지만 모였기에 커다란 에너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교우들과 수도자 성직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 가정에 가득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에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신은근

기억할 선종 사제
현기호(시몬) 신부
1985년 12월 30일

교구/본당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및 월례미사
일시: 12월 28일(목) 13:3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221차 ME주말 안내
일시: 2024년 1월 26일(금)~28일(주일)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전화 및 문자로 접수(문자발송-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배길우(바오로) 010·2057·3319
안은정(바울리나) 010·4598·7530

마산가정상담센터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외도),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마산역 앞 가톨릭여성회관(2층)
문의: 055·296·9126/ 297·3288
카페: cafe.daum.net/magapok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이용 안내(무료상담)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내용: 가정폭력(부부갈등, 중독), 다문화가족문제 등
방법: 전화, 내방, 방문, 서신, 온라인 상담
위치: 통영시 보건소 옆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1층)
카페: cafe.daum.net/6407795/ 인스타: tygapok
문의: 055·640·7795/ ★일시보호쉼터 운영
▶상담내용과 내담자의 신분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기 타

2024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모집
원서접수: 11월 13일(월)~2024년 2월 16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명례성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미사
새해 첫날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며 드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미사에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1월 1일(월) 07:00 미사 시작
장소: 명례성지 야외제대(신석복 마르코 생가터)
▶야외에서 미사를 봉헌하니 방한 준비를 잘 갖춰 오시고, 미사 후 따뜻한 떡국 나눔이 있습니다.

✚ 황인균 요셉 신부 부친 선종
황인균 신부(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장)의 부친 황춘웅(스테파노)님께서 12월 12일(화) 선종하여 12월 14일(목) 여좌동성당에서 장례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진주시복지원 직원 채용 공고
분야: 취사원 1명/ 모집: 채용시까지
근무시간 및 내용: 주 5일(09:00~18:00) 조정가능, 주방조리 및 배식, 기타 업무 등
문의: 055·762·7620 사무국장 010·8490·1627
▶급여 및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월영본당 제13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홍규(마태오)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박정실(안드레아)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이상순(미리암)
총무분과위원장: 이성열(도미니코)
재경분과위원장: 허성배(프란치스코)
선교분과위원장: 김수경(데레사)
교육분과위원장: 김현숙(레아)
홍보분과위원장: 최용대(바오로)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계수(즈가리야)
구역분과위원장: 송혜선(엘리사벳)
전례분과위원장: 제순녀(리오바)
시설분과위원장: 문귀호(요셉)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이동렬(사도요한)
청소년분과위원장: 오기택(요한 크리소스토모)

장등본당 제2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장도영(마태오)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전정환(요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광순(카타리나)
총무분과위원장: 권미라(리오바)
재경분과위원장: 최영주(안젤로)
구역분과위원장: 김영애(요안나)
교육분과위원장: 박안홍(시몬)
선교분과위원장: 박행자(모니카)
홍보분과위원장: 김경웅(라파엘)
전례분과위원장: 이정애(실비아)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최해정(세실리아)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신희락(요아킴)
청소년분과위원장: 노종수(요셉)
가정사목분과위원장: 손수향(카타리나)

월남동본당 제28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최정이(데레사)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남영욱(프란치스코)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성자(헬레나)
총무: 이민우(하상바오로)
기획재정분과위원장: 변귀순(아녜스)
복음화분과위원장: 오형수(마리아)
전례분과위원장: 김지혜(로사리아)
사회교육분과위원장: 이란(제노베파)
구역분과위원장: 강선화(율리안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박문숙(벨라뎃다)
홍보분과위원장: 강종헌(그리산도)
시설분과위원장: 최남배(루카)
봉사분과위원장: 최원태(토마스모어)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소향(아녜스)
여성분과위원장: 김선미(요안나)

사천본당 제2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최영철(마르코)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분과): 박우주(파치아노)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분과): 정양선(골롬바)
총무분과위원장: 안상수(빅토리노)
복음화분과위원장: 강미(글라라)
전례분과위원장: 정순이(수산나)
청소년분과위원장: 신상익(베드로)
구역분과위원장: 안숙연(마리아)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선희(데레사)
재경분과위원장: 이지현(세실리아)
시설관리분과위원장: 이준기(미카엘)
역사·홍보분과위원장: 안재완(프란치스코)
생태환경분과위원장: 박영옥(엘리사벳)

성령기도회	일 시	장 소	주 제	강 사	미사 주례	문 의
교 구	12월 25일(월)	기도회 쉽니다.				010·5247·990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살레시오회	12월 17일(주일)	창원 젊음의 집	유명일 신부 010·6221·3520	대상: 중1~35세 이하 미혼 남성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월 16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아키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1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우리농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릭스 상가 1층
055 · 266 · 7010

미카엘 여행사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모집
제주도(추자도) 매주 (월) 출발
2024년 2월 15일(목)~18일(주일) 부산·마산교구 4일
▪해외 성지순례 모집
2024년 1월 29일(월)~2월 2일(금) 하노이 하롱베이 5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대성의전 경남장묘컨설팅
산소 이장·무연고 처리
010-4848-9944
마산회원구 회성남 18길 2, 1층(회성동)
김종윤(클레멘스)

주일학교의 기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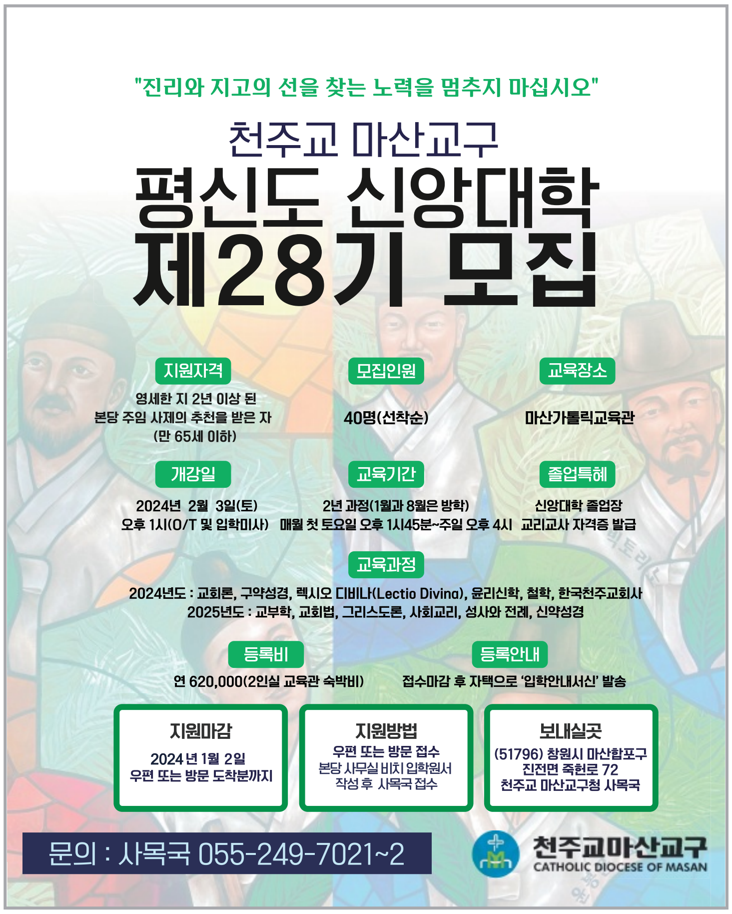
여운숙 마리아 시인/ 가톨릭문인회

이제 바다는 짙어졌고, 하늘을 향한 꽃들도 잠시 안녕을 고하는 시간.

교회력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인간은 추억을 먹고 성장하고 퇴행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때는 뺑뺑이(은행알) 추첨을 해서 번호를 받고는 과연 어느 학교로 배정받을까 궁금함으로 기다렸던 발표. 그렇게 배정받은 북원여중. 집하고 가장 멀리 있는 곳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하는 동안 도심을 지나면서 북적이는 시장 그리고 영화 포스터가 걸린 극장 앞을 지났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있는 진광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내리면서 우리는 곧 내릴 채비를 하였고, 반대로 비가 오는 날은 우리 학생들이 꽉 차서는 그곳 남학생들은 정차하지 않는 차를 바라보며 얼마나 야속했을지는…. 그렇게 중학교를 마치고 여고·여상으로 나뉘어 친구들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그야말로 단짝의 단짝들이 성당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대모가 되고 세례를 받으니 학생 수가 2~3배로 많아지고 2학년은 간부를 맡고 주도하는 과정에 서로서로 친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활발했던 중고등부 주일학교 시간들. 원주 시내 연합미사를 하러 다른 성당에 가면 우리보다 큰 성당에는 기가 죽고, 체육대회를 할 때면 죽기 살기로 하였습니다. 성경경시대회를 마치고 원주가톨릭센터 앞을 지나오면서 맞았던 바람의 향기. 그때 틀렸던 문제는 지금 더욱 익히게 되는 아이러니, 가을 포도밭을 갈 때는 누군가의 자전거 뒤에 앉아서 엉덩이가 욱신거렸던 시간의 흔적. 대학생이 되어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친구들을 보며, 어쩌면 우린 그때의 작은 활동이 밑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줍던 모습도 겨울 성탄 전야미사를 기다리며 행했던 행사의 주춧돌이 되는 등. 주일학교에서의 일들이 작은 사회 경험이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하며 기다려 주고, 회장의 말에 따르며 함께 걷고 함께 웃었던 우리들의 발자국. 원주 단구동성당의 성모동산 앞에서 찍었던 친구와의 세례 기념사진이 불쑥 머리를 스칩니다. 그렇게 우리는 10대에서 50대 후반을 잘 견뎌온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한 친구는 하느님을 만나러 갔고, 어떤 친구는 사제가 되고, 잠시 성당을 떠나기도 하고, 또 늦된 신앙생활이 더욱 빛을 보는 친구들.

거제도라는 생소한 곳으로 취직을 위해 와서는 여태껏 머문 것 또한 하느님의 품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주일학교 교사를 하던 1999년 첫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이 드는 아들이다."(마르 1,11) 이 복음에 따라 신부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 들어 봤던 친구! 손들어 보세요." 나는 뒤쪽에서 학생들을 살피다 깜짝 놀랐습니다. 맨 앞에 앉았던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하면서도 기특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준 내 아이, 과연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



제17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가톨릭문인회 정기총회

가톨릭문인회(담당: 주용민 리노 신부, 회장: 도경회 스텔라)는 12월 9일 교구청에서 가톨릭문학 25집 『그 입김, 세상 불꽃 살리고』 출간기념 감사미사와 제17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감사미사는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미사 후 가톨릭문학 신인상 시상식을 진행하였으며, 시 부문 당선 윤혁재 레오, 동화 부문 당선 하해영 마리아, 수필 부문 가작 손신기 안드레아에게 교구장 서리 명의의 상패와 상금이 수여되었다. 이후 정기총회에서는 결산보고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회장으로 조정자 이사벨라가 임명되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의 성혈 흠숭 수녀회

대림 시기 동안 고대하며 기다리던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구동성 즐겁게 노래합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보아라"(성가 109번 2절)

아기들의 출생은 그 부모에게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저출산 국가인 우리에게 이것은 더욱 실감 납니다. 아기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말할 것도 없는 큰 기쁨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희망을 현실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시메온이 고백한 것처럼 만민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큰 감격으로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성탄 시기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바로 구유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를 위한 표징이라는 말씀을 들었기에(루카 2,12 참조), 우리는 성탄 축일을 준비할 때 구유부터 꾸밉니다. 성탄 전례에 있어서도 구유를 축복하고 구유 경배 예절을 합니다. 이렇듯 성탄에 있어 구유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하는 구유 경배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계신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면 참 이상할 텐데도 말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계시다는 사실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과는 다르게 하려고 일부러 마굿간을 찾아 구유 위에 누우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여관이 다 차서 비어있는 방이 없었기에 마굿간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자연동굴을 마굿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통풍도 되지 않아서 가축들의 향기롭지 못한 냄새가 가득한 컴컴한 동굴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들이 머무는 곳에는 방이 없어 가축들이 지내는 마굿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다니 참으로 송구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 모두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방, 비어있는 공간, 비어있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어있음의 상징은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신 구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구유는 본래 가축의 먹이를 위한 것이지만 그 통이 비워져있기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각자도 마음 안에 자신만의 구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는 이 구유를 채우려 힘써 일하고 경쟁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욕구, 인정의 욕구 등 우리는 많이 허기져 있습니다. 허기진 욕구가 만족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으로 우리 마음의 구유를 채워 넣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득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허기가 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끝없는 허기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구유에 누워계시는 아기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리의 끝없는 허기를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빵집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가진 베틀레헴에서 태어나시어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마음 안의 구유부터 비워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안의 구유가 이런저런 것들로 채워져 있는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로 말끔히 치워져 있는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당에 모셔진 구유에 누워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 드릴 때, 우리 마음의 구유에도 아기 예수님을 모신 기쁨을 벅차게 누리시길 빕니다.

※ 그리스도의 성혈 흠숭 수녀회 원고는 이번 호로 마칩니다.
그동안 집필해 주신 수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